군산시간여행축제 대성황 이뤄

전국 각지서 약 16만명 축제 현장 찾아…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큰 호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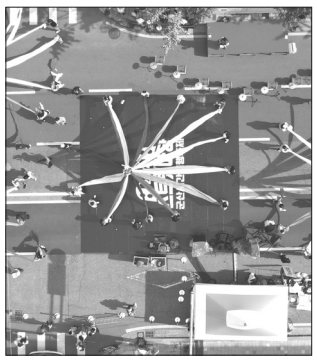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진행된 군산시간여행축제가 군산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밀려든 관광객들로 성황 속에 마무리됐다.

올해로 12회째를 맞았던 시간여행축제는 'Hello Modern, 군산시간여행축제-근대놀이'라는 주제로 구시청광장 및 시간여행마을 일원에서 개최되어 큰 인기를 모았다.

군산시는 올해 방문객이 15만9,911명으로 집계됐다며 작년 13만647명보다 2만9,264명이 더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군산 시간여행축제가 큰 인기를 모은 비결은 △다채로운 프로그램 기획△다양한 체험행사를 통해 높아진 교육적 성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성공적인 관광객 유입 △지역 상인들과 상생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 등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올해는 많은 군산시민들이 참여한 '시간여행 퍼레이드'와 개막식을 시작으로 축제의 장을 열었다. '우리모두 3·5만세', '군산항 밤부두 콩쿠르'와 같은 대표 프로그램들의 성황은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의 정체성을



굳건히 했다.

또한 축제의 주제인 '근대놀이'를 표현하기 위한 '근대 길쌈놀이'와 과거놀이, 현대놀이, 미래놀이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헷츠 플레이 로드'는 연휴를 맞은 가족단위 나들이객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관람객들과 시민들은 4일 동안 근대 군산의 역사를 공유하고 지역의 정체성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맘껏 체험할 수 있는 한바탕 놀이마당이었다고 호평했다.

전년에 비해 더욱 확대된 먹거리 골목 및 축제장 장소를 집중화 한 것도 방문객들에게 좋은 평을 얻었다. 축제장 일원 상인회와 지역민과의 협업을 통해 구영길 일대는 '시간여행마을 먹거리장터'와 '월지로 골목야시장'으로 재탄생하였다.

여기에 축제장 메인 대학로 옆길에 프리마켓과 주전부리 부스들을 배치해 축제장의 집중도를 높여 방문객들이 한 곳에서 다양한 볼거리와 먹을거리들을 만날 수 있게 하였다.

근대역사박물관 주변에서 관내 카페와 제과, 제빵업체들과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체험과 판매행사를 진행한 '커피야 놀자'와 '빵야빵야'도 지역 소상공인들의 판로확대와 함께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체험기회를 제공했다는 평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내년에는 더욱 다채로운 축제 프로그램으로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축제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호러 홀로그램 페스티벌' 성료

3만2000여명 방문 · 풍성한 프로그램 진행 '큰 호응'

익산 교도소 세트장에서 열린 '제3회 호러 홀로그램 페스티벌'이 짜릿한 전율을 선사하며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익산시는 지난 9월 26일부터 10월 3일까지 8일간 진행된 행사에 3만 2000여 명의 참관객이 방문했다고 4일 밝혔다.

'호러 홀로그램 페스티벌'은 홀로그램 콘텐츠와 공포를 뜻하는 '호러'를 융합한 축제다. 올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홀로그램기술 사업화 실증 지원 사업'을 통해 익산시가 주최하고, (재)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이 주관해 진행됐다.

올해는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와 방탈출 게임, 부대 행사 등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지난해보다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교도소 세트장 건물을 활용해 올해 처음으로 시도한 '호텔(HOTEL) 207, 죽음으로부터의 초대' 콘텐츠와 '프로젝션 맵핑쇼'는 미디어아트와 웅장한 음향이 어우러져 관람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했다.

아울러 댄스 공연, 코스프레 대회, 공포 버전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미니게임, 공포 분장과 의상 대여 등 지난해 보다 더 다채로운 프로그램은 다양한 연령대의 관람객들이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국립군산대, 해양-바이오 특성화대학 출범

'대한민국 해양 · 수산 교육의 장 연다' … 탈탄소 · 청정 · 해양 시대 선도 '기대'

국립군산대학교가 서해안 유일의 해양-바이오 특성화대학을 출범했다. 이와 함께 국립군산대학교가 대한민국 해양·수산 교육의 장을 새롭게 열며 탈탄소, 청정, 해양시대를 선도할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

국립군산대학교는 시대적 흐름과 대학 강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올해 대대적인 학사구조 개편을 실시했는데, 개편된 7개 단과대학 중 해양·바이오 특성화대학은 1915년에 설립된 군산간이수산학교를 모태로 한다. 110년의 해양·수산 교육 전통을 계승한 국내 최고 역사를 자랑하는 단과대학이다.

서해안 유일이자 최대 규모의 해양·수산 및 바이오 인프라를 풍부하게 갖춘 교육기관으로서 새롭게 출범한 해양-바이오 특성화대학은 서해안에 특화된 해양 및 바이오 분야의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및 연구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해양-바이오 특성화대학은 생명과학과, 해양수산공공인재학과, 해양생명과학과, 해양생물자원학과, 수산생명의학과, 식품영양학과, 기관공학과, 식품생명공학과 등 총 8개 학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이번 단과대학의 출범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신기술 개발과 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산업 생태계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군산대는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춘 해양·수산 및 바이오 분야의 융합형 인재를 양성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해양-바이오 특성화대학은 올해 말까지 세계적인 해양·수산 연구기관 10여 곳과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고, 지역 내 연구기관들과도 협력을 활성화하며, 학생들이 국제적 경험과 국내 현안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국가예산사업 발굴 '머리 맞대'

2026년 국가예산 · 국책사업 발굴 보고회 개최

군산시가 지난 4일 '2026년 국가예산 및 국책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강임준 시장 주재로 부시장과 국소장, 전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군산시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신규사업과 전북연구원에서 발굴한 국책사업에 대하여 토론과 예산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군산시는 2026년 국가예산 발굴목표로 △정주여건 개선, △신산업 및 로컬산업 육성, △문화·체육·관광 인프라 조성, △SOC 및 자연재난 대응 등 총 4가지 분야에 역점을 두었으며, 그 결과 18건에 총사업비 1조445억원 규모의 신규사업을 발굴하였다.

시에서 발굴한 주요 사업으로는 △학교복합시설 조성사업, △해양 무인이동체 O&M 인프라 구축, △군산 산북동 화석산지 전시관 건립,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원, △만경강 파크골프장 조성, △승화원 화장로 개·보수, △공공재활용 선별장 시설개선, △새만금 동서1축 10차로 확장, △군산 큰들숲 조성,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구축, △중앙분구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예방 등이다.

전북연구원에서 발굴한 국책사업으로는 △새만금 고령친화 사회서비스산업단지 조성사업, △새만금 전자상거래 복합물류센터 조성,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 조성, △군산 근대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 △아시아 근대기억공원(Memorial Park) 조성, △군산시 KTX 정차역 인프라 구축 등이다.

이번 보고회를 통해 발굴한 사업들은 정부예산 편성 시기에 맞추어 군산시-전북특별자치도-정치권 공조를 강화해 예산반영을 위한 정부 설득을 이어갈 예정이다.

강임준 시장은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공고히 하고 있고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예상되어, 신규 국가예산사업 추진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군산시에서는 정부(재정)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시급성 등 사업 필요성에 대한 논리를 개발해 부처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군산=이재춘기자

군산시, 이화명나방 · 벼멸구 사전 공동방제… 피해 감소 효과

군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는 지난 4일 최근 벼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이화명나방과 올해 전국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는 벼멸구 피해가 감소하거나 제한적으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화명나방은 미성동을 중심으로 최근 3년 동안 심각한 피해를 주고, 인근 지역까지 확산 되는 추세로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보다 효과적인 방제를 위하여 7월 21일부터 26일까지 이화명나방 2화기 긴급 방제를 마쳤고 피해 면적은 작년 500ha 발생에서 올해는 291ha로 감소하였다.

벼멸구의 경우 전국적으로 3만 4,000ha에서 발생한 가운데, 군산시에서는 9월 11일 산북동 지역에서 처음 발견되었다. 피해 면적은 43.2ha로 타 시군보다 적게 발생하였다. 이는 7월 군산시 전 지역 대상으로 한 공동방제와 벼멸구 신속한 약제 지원으로 밀도가 대폭 감소 확산방지에 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군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 2024 주얼팰리스 보석대축제 16~27일 개최

보석 산업 중심지 익산에서 형형색색 아름다운 보석을 만날 수 있는 '2024 주얼팰리스 보석대축제'가 펼쳐진다.

익산시와 전북특별자치도가 후원하고 ㈜주얼팰리스협의회(회장 송재규)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왕궁면에 위치한 주얼팰리스와 보석테마관광지 일원에서 열린다.

이번 축제에는 주얼팰리스 54개 업체가 선보이는 화려하고 희귀한 보석을 만나볼 수 있으며, 진귀한 보석(24K, 다이아몬드 제외)을 3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또한, 주얼리 우수작품 특별전시, 개인소유의 보석을 원하는 디자인으로 변경할 수 있는 보석 리세팅, 보석 가공 시연, 체험 부스 운영, 보석산업 사진전시회 등 다채로운 행사로 꾸며진다.

아울러 축제가 진행되는 보석테마관광지는 보석박물관과 실내·외 놀이체험시설 다이노키즈월드가 있어 부모부터 자녀까지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가을 나들이도 즐길 수 있다.

행사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주얼팰리스협의회(063-834-5100)에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익산=이재춘기자

익산시, 에이즈 · 매독 예방 수칙 준수 당부

익산시보건소가 지난 4일 법정감염병 3급에 속하는 에이즈와 매독에 대한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매독은 지난해까지 표본감시 대상인 4급 감염병이었으나, 국내 환자 수 증가로 올해부터 전수감시 대상인 제3급 감염병으로 상향 조정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에이즈와 매독 예방을 위해서는 익명성 성 접촉, 잦은 성 상대자 변경, 혈액 접촉, 성매매, 콘돔 미사용 등 위험한 성 접촉을 피해야 한다. 또한 증상이 있으면 빠른 시일내 병·의원에 내원해 진료와 치료를 받을 것을 권장한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 · 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이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장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곳이다.